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해외 특별 교구장에 정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해외 특별 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최근 열린 임명식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해외 교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며 “많은 해외 한국 사찰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잘 화합시키고 단합시켜서 ‘삼보정재’ (三寶淨財)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라고 당부했다. 해외 특별 교구장에 임명된 정우 스님은 “해외 특별 교구는 군종 교구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해외 교구가 활성화되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흥법 스님을 은사로 1968년 수계(사미계)했으며 통도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군종 특별 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장학금 전달 베델교회

어바인에 있는 베델교회(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가 ‘2020년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관련기사 본보 1317호 장학생 선발, 어바인 베델교회).

베델교회는 홈페이지 자료실 공지를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주 동안 71명의 베델교회 자녀, 지역사회 교인 자녀, 그리고 선교사 자녀가 지원한 가운데 장로와 안수집사 5명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54명을 최종 선발했다.” 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1,000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고 전했다. 이어 “당초 교회는 장학금 수여식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방역 안전 수칙을 준수해 7월 26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수상자들이 감사 편지와 영상을 보내오는 것으로 대신했다.” 고 덧붙였다.

▶ 문의: scholarship@bkc.org



마음의 눈을 뜨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一切唯心)라고 말합니다. 마음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心外無物), 마음이 곧 부처다(是心即佛)라고도 합니다.

마음 “심” 한 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하면 일체의 불교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마음을 알게 되면 부처를 알고, 마음이 부처이니까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종(自初至終)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의 눈을 뜨자” “마음의 눈을 뜨자” 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자기가 먼 천지개벽(天地開闢) 전부터 벌써 성불했다는 것,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겁이 다하도록 성불한 그대로 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결국 자성(自性)을 보는데 그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법(觀法)을 한다, 주력(呪力)을 한다, 경(經)을 읽는다, 다라니를 외운다 등등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수승한 방법이 참선입니다. 참선하는 이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만 참선하는 것이 아니고 탄 종교에서도 참선 많이 합니다.

가톨릭 수도원의 아빠스(수도원장)라는 분이 나에게서 화두를 배운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요새도 종종 오는데 화두 공부해 해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와서 화두 배운다고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네들 천주교에서는 바이블



(Bible) 외에 무엇으로써 교리의 의지(依支)로 삼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신학대전(神學大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그 책을 거의 완성하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큰 변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는 그 책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그 책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책이 하도 훌륭하므로 예수교에서는 그것을 신학교리의 큰 권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책이 처음에는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썩은 지푸라기인 줄 알고 차버린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토록 심경 변화된 그 마음자리,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화두를 부지런히 부지런히 익히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교 사람들도 참선은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 믿는 사람이 도리어 참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선을 하려면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화두를 근본으로 해야 됩니다. 화두를 배워야 됩니다. 화두, 공안(公案)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떠서 확철히 깨쳐야 알지 마음의 눈을 떠서 깨치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기 좋은 법문이 있습니다.

오색 비단구름 위에 신선이 나타나서(彩雲影裏神仙現). 손에 든 빨간 부채로 얼굴을 가리었다.(手把紅羅扇遮面) 누구나 급히 신선 얼굴을 볼 것이요(急須著眼看仙人) 신선의 부채는 보지 말아라(莫看仙人手中扇)

생각해 보십시오. 신선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빨간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선을 보기는 봐야겠는데 얼굴을 가린 부채만 보고 신선됐다고 할 것입니까? 빨간 부채를 보고서 신선을 보았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화두를 참구(參求)하는 근본자세가, 화두는 암호인데 이 암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느냐 하면, 잠이 깬 들어서도 일어(一如)한 데에서 깨쳐야만 풀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못 푼다는 것,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눈을 확실히 뜨면 이것이 견성인 동시에 뜯 앞의 잣나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란 것은 마음 “심(心)” 입니다. 마음의 눈만 뜨면 일체의 문제 일체의 만법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삼세제불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체법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뭐냐 하면 자성을 보는 것인데 바로 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공부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여 화두를 바로 아는 사람, 마음의 눈을 바로 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업소명(한글):	주소:
(영문):	City State Zip
업종:	

Phone: Fax

타운뉴스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